

2023. 10. 17.(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1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724-0138
전 시 과 장	이진현	724-0145
담 당 자	이은혁	724-0154
누 리 집	<a href="https://museum.seoul.go.kr">https://museum.seoul.go.kr</a> 상단<전시> → 좌측<기획전시>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9매

## 서울역사박물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서울의 멋>전展 개최

- 10.17(화) 헝가리 국립민족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여
- 전통과 현대,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수도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조명
- 의(衣)·주(住)생활을 중심으로 서울의 전통적인 멋과 전통의 계승에 대한 소개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복식류 및 장신구 등 유물 200여 점 전시

-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직무대리 기봉호)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대표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서울의 의·주생활을 부다페스트 시민에게 소개하는 <서울의 멋>전을 개최한다.
  - 이번 전시는 지난 2022년 6~9월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 헝가리 국립민족학박물관 <나의 하루 이야기-헝가리에서 온 사진>展의 답방 전시이다.
- 헝가리 국립민족학박물관(관장 라요스 케멧시 Lajos Kemecsi)은 150년의 역사를 지닌 헝가리의 대표 박물관이며, 부다페스트 도시공원 내에 33,000㎡ 면적으로 2022년 5월 재개관하였다. <서울의 멋>전시는 헝가리 국립민족학박물관 재개관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교류전이다.

## < 헝가리 국립민족학박물관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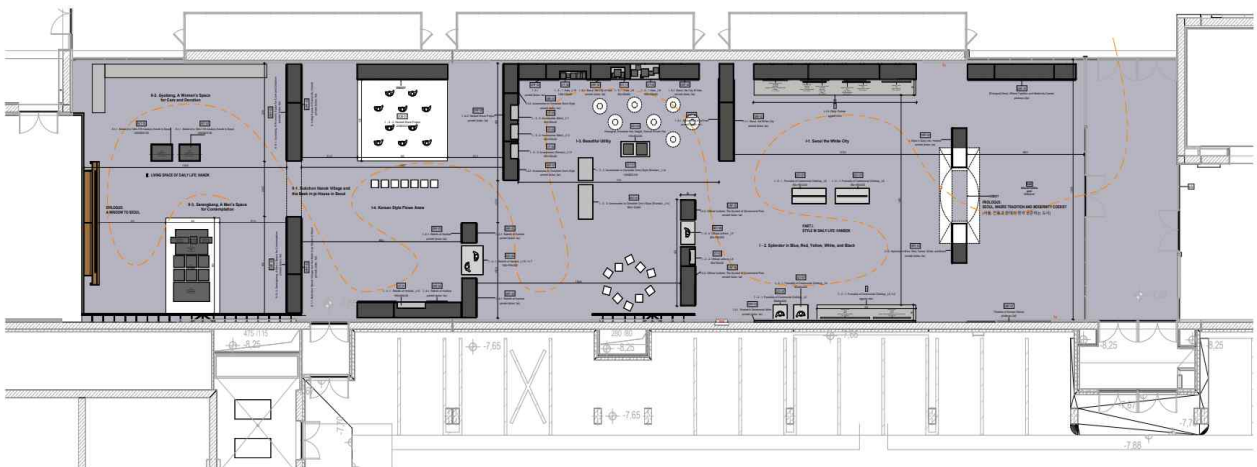


국립민족학박물관 전경

- 위치 : 부다페스트 도시공원 내(면적 33,000m<sup>2</sup>)
- 재개관 : 2022. 5. 23.
- 개관 150년의 역사를 가진 헝가리 대표 민족 박물관
- 현재 진행중인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시문화 개발 프로젝트(Liget Budapest Project)의 주요 랜드마크로, 도시와 공원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출입문 기능 수행
- IPA 세계 최고의 건축물 등 다수 건축상 수상

- 전시는 헝가리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요청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의 소장 유물 중 서울의 의·주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의복과 장신구, 보자기 등의 멋스러운 유물들을 선별하여 전시한다. 아울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협조로 이뤄진 현대 한복 작품 10점을 전시함으로써 한복의 현대적 계승을 소개한다.
- 헝가리 국립민족학박물관의 기획전시실 640m<sup>2</sup>의 공간에서 보자기의 아름다운 전통문양을 이용하여 만든 3D 영상을 상영하는 도입 부분을 시작으로 총 2부로 구성된다. 전시 공간 및 각부의 내용과 전시된 대표 유물은 다음과 같다.

## < 국제교류전 ‘서울의 멋’ 전시 공간 >








## □ 〈1부 일상의 멋\_한복〉

- ‘한복’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담긴 의상을 뜻한다. 조선시대 한복은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화려함보다 선과 비례를 강조한 은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일상에서 입었던 옷은 ‘소색(素色)’이라하여 염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백색의 옷을 입었다. 그리하여 개항 이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흰 옷에서 연상되는 ‘조용함’, ‘소박함’을 한국인의 특성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 예복, 관복 등에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음양오행’에 바탕을 둔 오방색 등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아름다움에 실용적인 측면을 더한 다양한 모자와 장신구들은 한복의 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개항 이후 한복은 서양식 복식의 유입으로 간소화되었으며, 오늘날 한복의 전통적 특성과 현대적 디자인이 혼합된 형태의 새로운 시도들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있다.
- 주요 전시유물은 다음과 같다.

### 〈1부 일상의 멋\_한복〉

조선시대의 일상복인 저고리와, 바지(남성용), 치마(여성용)와 오방색을 바탕으로 하는 남성과 여성의 왕실 예복, 벼슬의 상징 관복, 아름답고 실용적인 모자류 및 동곳, 풍잡 등의 남성 장신구와 비녀, 댕기 등의 여성 장신구가 전시된다. 아울러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대 한복 10점과 타래 버선 형태의 구두와 철릭원피스 등을 선보인다.

사진	제목 및 내용
	<p><b>도포</b></p> <p>조선시대 왕부터 관리를 비롯한 상류층 남성이 평상시 입었던 외출복이다.</p>
	<p><b>적의</b></p> <p>조선시대 왕실 여성이 제사, 혼례 등 주요 행사 때 입었던 예복이다. 꿩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직조한 옷감으로 만들었다.</p>
	<p><b>적초의</b></p> <p>조선시대 나라에 큰 행사 때 입었던 예복인 조복을 구성하는 의복 중 하나이다.</p>
	<p><b>단령</b></p> <p>왕실 남성과 관리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입는 관복을 구성하는 의복 중 하나이다.</p>

사진	내용
	<p><b>옥로립</b> 조선시대 왕실 남성들과 고위 관리들이 군복에 갖추어 쓰는 모자이다.</p>
	<p><b>풍차</b> 남녀가 모두 사용했던 방한용 모자이다.</p>
	<p><b>패철선추</b> 부채의 손잡이 부분에 매달아 사용한 장신구로 휴대용 나침반이 들어있다.</p>
	<p><b>도투락댕기</b> 혼례식 때 신부의 머리 장식으로 족두리나 화관을 쓸 때 머리 뒤쪽으로 길게 늘어뜨렸다.</p>
	<p><b>현대 한복</b> 2022년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한복사업(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결과물로 전통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p>

□ <2부 일상의 터전\_한옥>

- ‘한옥’은 한국 고유의 기술과 양식으로 지은 건축물을 말한다. 한옥은 자연 및 주위 환경과 어울리도록 배치되었으며, 나무, 흙, 돌, 종이 등의 자연 재료를 사용하였다. 한옥의 독특한 특징은 온돌과 마루이며, 이는 현대적 건축에도 사용되고 있다.
- 조선시대 살림집 한옥 내부 구조는 여성의 생활공간인 안채와 남성의 생활공간인 바깥채로 구성되었으며, 각 건물의 쓰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는 조선의 유교 이념이 생활 공간에도 적용된 경우로 남녀 간의 엄격한 분리와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 주요 전시유물은 다음과 같다.

<2부 일상의 터전\_한옥>

한옥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옥모형과 조선시대 여성의 공간인 ‘규방’과 관련한 공예 유물인 바느질 도구, 보자기, 주머니 등이 전시된다. 아울러 남성의 공간인 사랑방을 연출하여 포토존으로 운영한다.

사진	내용
	<p><b>한옥모형</b> 조선시대의 수도 한양의 중부(현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일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집자리 유구를 기초로 만들어진 서울 한옥 모형이다.</p>
	<p><b>나전반질고리</b> 바느질할 때 사용되는 도구를 넣어두는 상자이다.</p>






사진	내용
	<p><b>실패</b>  실을 감아두는 바느질 도구이다. 주로 나무로 만들었으며 자개로 장식한 형태도 있다.</p>
	<p><b>골무</b>  바느질 할 때 손이 찢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가락 끝에 끼우는 바느질 도구이다. 직물을 여러 겹 덧대거나 가죽으로 만들기도 한다.</p>
	<p><b>바늘방석</b>  바늘이 녹스는 것을 예방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솜이나 머리카락을 채워 바늘을 꽂아 두는 바느질 도구이다.</p>
	<p><b>식지보</b>  밥상이나 음식이 담긴 목판 등을 덮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안감은 식물 기름을 칠한 종이를 사용하여 만들었다.</p>
	<p><b>조각보</b>  의복 등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옷감을 이용하여 만든 조각보이다. 조각보는 그 구성의 세련미와 현대성으로 인하여 근래에 주목받고 있다.</p>

사진	내용
	<p><b>귀주머니</b></p> <p>조선시대 옷에는 주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주머니를 만들어 허리에 차고 다녔다. 길면에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무늬, 장수를 상징하는 불로초무늬, 복을 상징하는 박쥐무늬 등을 수놓아 장식하였다.</p>
	<p><b>사랑방 공간 연출</b></p> <p>조선시대 사랑방 공간을 연출하여 포토존으로 운영</p>

- 기봉호 서울역사박물관 직무대리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더욱더 다양한 국가와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k-Culture에 관심이 높은 헝가리에 k-Culture의 중심인 서울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양 국가와 도시의 문화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10월 17일부터 2024년 2월 18일까지 헝가리 국립민족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https://museum.seoul.go.kr>) 또는 헝가리 국립민족학박물관 누리집(<https://www.neprajz.hu>)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전시 홍보물



**Charm of Seoul**

**서울의 멋**

Museum of Ethnography, Budapest  
October 17th, 2023

[neprajz.hu](http://neprajz.hu)

Néprajzi Múzeum  
Museum of Ethnography

서울역사박물관  
SEOUL MUSEUM OF HISTORY

SEOUL MY SOUL  
JOURNAL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